# “나눔·저항 오월정신, 헌법 명문화로 역사왜곡 청산을”

80년 5월 그날의 진실 되짚는다 ⑤끝·전문가 제언

## 5·18특별법 처벌조항 실효성 미비 ‘예외 조항’ 삭제 등 법 개정 필수 “국가 차원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수십 년간 은폐되고 왜곡된 오월의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전문화는 5·18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될 시대적 과제로 이제는 역사왜곡, 신군부 잔재 청산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할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특히 미래세대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나눔과 저항의 오월 정신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민병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소장은 15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 이후 왜곡·폄훼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허위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법 적용 범위가 넓어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 소장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간한 백서 등을 토대로 특별법을 개정해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8조에 처벌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이기에 법 개정을 통해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월정신은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됐듯이 신군부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며 “5·18 정신은 국내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동남아시아 등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국가들에게 귀중한 교훈과 정신적 유산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원포인트 개헌 방식을 통해 여야가 합의 가능한 5·18 헌법전문 수록 등 주요 사안을 우선적으로 헌법 개정하는 1차 개헌을 해야 한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2차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도 더욱 강화된 처벌 규정을 담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오월 정신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고 나눔과 연대의 가치다”며 “오월 정신이 현재까지 계승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막아낼 수 있었던 만큼 헌법과 법률을 개정해 사회 대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 전문화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다시는 이 땅에 5·18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약속이 될 것이다”며 “또 5·18유공자예우법이 시행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5·18유공자가 아직 국가유공자로 포함되지 못해 법적 지위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5·18 역사왜곡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일부 세력의 끊임없는 왜곡과 폄훼 시도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유공자 예우는 단순한 요구가 아닌 시대의 엄중한 사명이다”며 “5·18을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역사로서 진실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의식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전문 수록만이 국민통합의 강력한 구심점이 되고,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역사의 교훈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교육적 효과도 매우 클 것이다”며 “5·18 정신은 광주만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보편적인 가치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왜곡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기우식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대변인은 5·18 진실규명과 오월 정신 계승을 위한 방안으로 △모든 기록물 자유 열람을 통한 연구 △국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 설립 △5·18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꼽았다.

기 대변인은 “극우 세력들이 5·18 관련 의혹을 선동할 뿐만 아니라 학술적·국가적 차원의 왜곡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화는 5·18의 숭고한 가치를 영원히 기억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국민 모두가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5·18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18 정신 계승 및 왜곡 대응 운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당한 시민들을 치료했던 광주 동구 옛 적십자병원(5·18사적지 제11호)이 11년 만에 공개돼 15일 관람객들이 중앙현관에 전시된 사진물 등을 관람하고 있다. 중앙현관 출입 문위에 적십자병원이 매각돼 서남병원으로 바뀐 흔적이 남아 있어 내용을 잘 모르는 관람객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11년 침묵 깬 ‘오월의 기억’…역사 문화공간 부활

## 옛 광주적십자병원 가보니 5·18 45주년 맞아 한시 특별 개방 응급실·중앙복도·영안실 등 공개

“12·3 비상계엄을 통해 얻은 민주주의의 중요성 깨달았어요. 45년전 광주시민들의 생명을 책임진 이곳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역사자료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15일 오전 11시께 11년만에 시민들 앞에 공개된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45년전 광주시민 항쟁의 모습이 담긴 역사적인 현장을 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멈춘 공간의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오픈한 5·18사적지 11호 옛 광주 적십자병원은 병원 내부 응급실과 중앙복도, 중앙현관, 병원 외부 영안실과 야외마당 등 일부 공간만이 개방돼 시민들을 맞이했다.

이날 옛 적십자병원을 방문한 관람객들은 응급실 출입구를 이용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자를 치료했던 공간인 응급실에서 당시 적십자병원에 근무한 간호사·의사들의 증언과 오월 안내해설사의 인터뷰 영상을 시청했다.

관람객들은 당시 현장을 재현한 의료용 베드와 산소 공급기 등을 직접 만지고 앉아보며 당시 급박했던 상황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한 관람객은 병원 벽에 붙어있던 산소 공급기를 가리키며 친구들에게 “식염수 등을 원형 통에 넣고 사용했던 산소 공급기다”고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중앙복도로 향한 관람객들은 2013년 서남대학교 병원의 마지막 모습이 남아있는 건강관리과, 정형외과, 치과 등 내부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전시회 관계자는 “서남대 병원의 건물 내부 자료 청산이 미완료 돼 환자 차트 등이 남아있어 관람객의 진료실 내부까지 입장이 어렵다”고 거듭 안내하기도 했다.

관람객들은 중앙현관 한편에 마련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진기자가 촬영한 광주 적십자병원 내 헌혈 및 부상자 치료 사진전을 관람했다.

한 관람객은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의료진들은 쉴 새 없이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었고, 헌혈에 참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의 모습은 숭고한 연대 정신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병원 뒤편 야외마당에서는 2019년 MOIZ가 ‘당신이 바라는 광주 적십자병원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라는 질문을 통합 답변을 인터뷰와 합성 이미지로 기록한 전시회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젊은이들의예술공간’, ‘유명한 건물’, ‘대형마트’, ‘5·18 기록관’, ‘철거’, ‘보존’, ‘무료 급식소’, ‘오월 여행자 센터’ 등 8가지의 의견을 담은 그림들을 한 점 한 점 바라보며 토론하기도 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방문한 신지현씨(27·여·간호사)는 “서울에 살면서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30번 정도 시위에 참여했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생각해서 광주에 꼭 와보고 싶었다”며 “옛 광주 적십자병원을 방문해 보니 역사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고,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느낌이 좋았다”고 말했다.

임정현씨(25·여·전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시민들이 찾아와 5·18 관련 내용을 구현함으로써 앞으로 이 건물의 쓰임이 아픈 기억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오는 31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픈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1,72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수민 기자